

### 합류시대는 아버지와 자녀들의 만남의 시대다.

오늘 너희들 모두 만남을 축하하려고 여기에 도착했다. 이 집회는 아버지와 자녀들의 행복한 만남의 집회다. 많은 영혼들이 이 만남을 가지려고 많은 종류의 노력을 하지만, 그들은 신이 무한하다거나 만남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어렵다고 믿으면서 그래도 여전히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다. 그들은 만남이 언젠가는 이루어지리라는 희망을 갖고 전진해 왔으며 아직도 그 희망 속에서 여전히 나아가고 있다. 계속해서 결별에 대한 노래를 부르면서 언젠가는 만남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언젠가는 그가 오든지 자기들이 언젠가는 그를 찾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영혼들이 많다. 그 모든 사람들은, “언젠가” (카브)라고 말하는 반면 너희들은 모두 “지금” (아브)이라고 말한다. 그들은 헤어져 있는 자들이고 너희는 쉬운 요기들이다. 너희는 1초에 만남을 경험하는 자들이다. 지금도 만일 누군가 자기들이 언제, 얼마나 빨리 아버지를 만날 수 있겠느냐고 묻는다면 너희는 뭐라고 대답하겠느냐? 자녀들이 아버지를 만나는 일은 결코 어려울 수 없다고 너희는 믿음과 열의를 가지고 말할 것이다. 너희는 그를 쉽게 항상 만난다. 합류시대는 아버지와 자녀들이 만나는 시대다. 너희들은 끊임없이 만남 안에 머물러 있다. 그것은 멜라 (만남)다. 멜라는 만남이라는 뜻이다. 너희는 대단한 도취감을 갖고, “당신들은 그것을 만남이라고 부르는 반면 우리들은 끊임없이 그와 함께 있습니다, 즉 우리는 아버지와 같이 먹고 마시고 우리는 그와 함께 걷고 놀며 그에게서 부양 받고 있지요” 라고 할 것이다. 너희는 이 정도로 도취감을 갖고 있느냐? 그들은 너희가 어떻게 아버지, 지고의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느냐고, 또 어떻게 그에게 너희의 마음을 집중할 수 있느냐고 묻는 반면 너희의 마음에서는, “우리의 마음을 그에게 얼마나 집중하느냐는 것은 문제도 아니고 우리들의 마음은 지금 그에게 속합니다” 라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너희는,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을 그에게 집중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묻는데 너희의 마음이 너희들의 것이냐? 일단 너희가 아버지에게 마음을 주었으니 그것은 누구의 마음이냐? 그것이 너희의 것이냐, 아버지의 것이냐? 마음이 아버지에게 속하므로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을 그에게 집중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은 있을 수 없다. 너희에게는 그를 어떻게 사랑하느냐고 물을 수도 없는데 왜냐하면 너희는 끊임없이 사랑 속에 잠겨 있기 때문이다. 너희들은 사랑의 화신이 되었다. 너희는 사랑의 대양 마스터가 되었으니 너희의 사랑을 가질 필요가 없다, 즉 너희는 이미 사랑의 화신이 되었다. 하루가 지나는 동안 너희는 무엇을 경험하느냐? 사랑의 물결이 하루 내내 파도치는 것을 너희는 자동적으로 느낀다. 지식의 태양의 광선과 빛이 더 많이 늘어날수록 사랑의 파도가 더 많이 솟아오른다. 암릿 벨라에 지식의 태양의 멀리는 무엇을 하느냐? 그것은 많은 파도가 솟아오르게 하지 않느냐? 너희들 모두 이것을 경험하지 않느냐? 지식의 파도, 사랑의 파도, 행복의 파도, 평화의 파도, 힘의 파도가 나오고 너희들은 그 파도 속에 잠긴다. 너희는 이 알로키한 유산을 성취하지 않았느냐? 이것이 브라민의 생이다. 파도 속에 잠겨 있음으로써 너희는 대양처럼 된다. 너희는 계속해서 영원히 그러한 만남을 축하하겠느냐, 아니면 그 만남을 축하하려고 여기에 왔느냐? 만일 브라민이 되고 나서 너희가 대양에 합쳐지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그 경우엔 브라민의 생의 특별함이 무엇이겠느냐? 이 특질은 유산에 대한 성취라고 불린다. 세속의 브라민들 모두 이 영적인 성취의 경험을 갈구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목마른 (차트라크) 자녀들 모두 밥다다 앞에 있다. 밥다다는 그의 앞에 무한한 강당을 두고 있다. 모든 이가 다 이 강당에 들어올 수는 없다. 자녀들 모두 쌍안경을 들고 여기에 앉아서 먼 데 있는 장면들을 그들 앞에 육신의 형태로 경험하고 있다. 밥다다는 자녀들 모두의 편안하고 고귀하며 완전한 성취를 보며 기쁘다. 너희들 모두 항상 그 정도로 명랑하냐

(하르시트)? 아니면 때로는 명랑하고 가끔은 마야에게 이끌리느냐 (아카르시트)? 너희는 마야의 혼란에 붙들리지는 않을 테지? 혼돈은 높지를 만든다. 너희는 이제 높지에서 빠져나와서 마음의 옥좌에 앉아 있지 않느냐? 그저 그것에 대해 좀 생각해봐라! 높과 마음의 옥좌는 것처럼 엄청나게 다르다. 너희는 어떤 것을 더 좋아하느냐? 소리쳐 우는 것이냐, 옥좌에 오르는 것이냐? 너희는 옥좌를 더 선호한다. 그렇다면 너희는 어째서 높으로 들어가느냐? 높지로 가까이 가면 수렁은 심지어 먼 데서도 너희를 끌어당긴다.

너희는 너희들 자신을 새롭다고 여기면서 여기에 왔느냐, 매 사이클마다 권리를 가진 자들이라고 여기면서 여기에 왔느냐? 새로운 자들도 왔다. 소개된다는 면에서 너희는 새로운 자들이라고 불리지만, 알아본다는 면에서 너희는 새롭지 않다, 그렇지 않느냐? 너희는 바바를 알아보려고 새로운 이들로써 여기에 오지 않았다, 그렇지 않느냐? 너희는 인식의 제3안을 이미 받았느냐, 아니면 그것을 얻으려고 왔느냐?

여기에 온 너희 자녀들 모두 브라민으로 태어난 날 생일 선물을 받았느냐, 아니면 너희의 생일을 축하하려고 여기에 왔느냐? 너희들은 아버지에게서 제3안을 생일 선물로 받았다. 너희는 아버지를 알아보는 눈을 받았다. 너희가 태어나서 제3안을 받자마자 너희의 입에서 나온 첫 번째 말이 무엇이었냐? “바바!”였다. 너희가 바바라고 말한 것은 너희가 알아보았기 때문이다. 너희들 모두 생일 선물을 받았느냐, 아니면 아직도 못 받은 채 남겨진 자들이 일부 있느냐? 너희들 모두 그것을 받지 않았느냐? 선물은 항상 아주 잘 보살펴진다. 밥다다는 각 자녀를 바로 옆 사람보다 더 많이 사랑한다. 앗차.

모든 권리를 다 가진 그런 영혼들에게, 대양의 여러 가지 파도 안에서 끊임없이 전진해 나아가고 있는 경험의 화신인 자녀들에게, 항상 마음의 옥좌에 앉아 있는 자녀들에게, 쌍안경을 들고 앉아 있는 이 나라와 외국에서 온 자녀들과 더불어 아버지와의 만남을 끊임없이 축하하는 고귀한 영혼들에게, 아직 밥다다를 모르는 세상의 자녀들에게- 밥다다는 그들에게도 역시 사랑과 기억을 주고 있다- 너희가 각자 가진 사랑에 따라서 모든 영혼에게 사랑과 기억과 모든 상속자들에게나마스테.

**밥다다가 다디지에게 말씀하심 .**

너는 아버지의 동반으로 물들었다. 너는 아버지와 대등해졌다. 너의 안에서 누가 변함없이 보이느냐? 아버지가 너의 안에서 보인다. 이처럼 너는 그와 동반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누구든지 너를 보면 아버지를 기억하는데 왜냐하면 네가 그의 안에 잠겨 있기 때문이다. 합쳐져 있는 자들은 대등하고 이런 이유로 너는 사랑과 협조의 보호라는 특별한 덮개를 갖고 있다. 너는 특별한 배역을 맡았고 보호의 특별한 덮개는 미묘한 지역, 서틀 리전에 특별하게 지어졌기 때문에 너는 늘 가볍다. 너는 짐의 무게를 느끼는 적이 있느냐? 너는 보호의 덮개 아래 있지 않느냐? 모든 것이 아주 잘 진행되고 있다. 밥다다는 이것을 보고 기쁘다.

**밥다다께서 그룹들을 만나심 .**

1) 너희가 온 세계 전체에서 특별한 영혼들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인식하느냐? 특별한 영혼들은 평범한 생각을 단 하나라도 하거나 단 1초도 평범한 말을 할 수 없다. 이 인식이 너희를 변함없이 강력하게 만들 것이다. 너희가 강력하고 특별한 영혼이라는 도취감과 행복을 항상 지속해라. “강력하다”는 것은 일체의 낭비를 끝내는 자들이라는 뜻이다. 해가 어둠을 없애고 쓰레기를 태워 없애는 것과 마찬가지로 강력한 영혼들은 일체의 낭비를 끝낸다. 낭비의 계좌를 끝내고 고귀한 생각들, 고귀한 행위들, 고귀한 말, 연결, 관계의 계좌가 끊임없이 불어나게 해라. 너희는

그것을 경험하느냐? “너희는 강력한 영혼들이다”. 너희가 이를 인식하자마자 모든 낭비가 끝난다. 그것을 잊으면 낭비가 시작된다. 너희의 인식이 자동적으로 너희 단계를 만들어낸다. 그러니 인식의 화신이 되어라. 형태는 결코 잊히지 않는다. 너희의 모습은 인식의 화신이므로 또 힘의 화신이기도 하다. 이 훈련과 깊은 이 사랑이 있게 해라. 이 깊은 사랑에 변함없이 잠겨있는 것이 유일한 삶이다.

너희의 열성과 열의가 어떤 상황이나 분위기에든 결코 줄어들지 않게 해라. 너희는 한결같이 앞으로 나아가는 자들인데 왜냐하면 합류시대는 너희가 열성과 열의를 얻는 시대이기 때문이다. 합류시대에 열성과 열의를 갖지 못한다면 너희는 전체 사이클 내내 그것을 가질 수 없다. 지금이 아니면 절대 안 된다! 브라민의 삶에서는 열성과 열의가 전부다. 너희가 이제껏 받은 것들을 남들에게 나눠주려는 열의를 가져라. 열의도 역시 변함없는 행복을 나타내는 징표다. 열의를 지닌 자들은 늘 행복하다. 너희가 열기를 원했던 것은 뭐든지 이제까지 다 얻었다는 열의가 있다.

너희는 앙가드처럼 변함없이 흔들림 없고 부동한 단계에 머무는 고귀한 영혼들이라는 도취감과 행복 속에 머물러라. 한 분의 사랑스러움에 넋을 잃고 지내는 자들과 안정되고 한결같은 단계를 가진 자들은 변함없이 흔들림이 없다. 한 분이 계신 곳에는 갈등이 없다. 그러나 둘이 있으면 그때는 2원성이 있다. 한 분과 너희들은 한결같이 사랑하면서 초연하게 머문다. 너희의 지각이 한 분 외에는 다른 어디로도 가지 않게 해라. 너희가 한 분에게서 모든 것을 다 성취할 수 있는데 어째서 다른 방향으로 가느냐? 너희는 참으로 쉬운 길을 찾았다! 너희는 한 분에게서 하나의 목적지와 모든 성취를 이미 찾았는데,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하냐? 너희는 모든 것을 다 찾았고, 그게 전부다. 너희는 아버지를 얻기를 원했고 그래서 너희는 그를 얻었다. 그러니 계속 이 행복 속에서 춤추고 행복의 노래를 불러라. 2원성에는 성취가 없으므로 오직 그 한 분에게서 온 세계 전체를 경험해라.

끊임없이 너희 스스로를 주인공 배우라고 여기며 모든 행위를 행해라. 주역배우인 자들은 참으로 큰 행복을 가지지만 그런 것들은 한정된 배역들이다. 너희 모두 무한한 배역들을 맡았다. 너희가 누구와 더불어 각자의 배역을 연기하겠느냐? 너희는 누구에게 협조하느냐? 너희는 어떤 봉사의 도구냐? 너희의 의식 속에 이것을 끊임없이 갖고 있으면 너희는 항상 명랑하고, 항상 충만하고, 항상 더블 라이트할 것이다. 매 발걸음마다 항상 유익이 있을 것이다. 너희가 과거에 무엇이었고 지금은 너희가 무엇이 되었느냐? 와, 나! 그리고 와, 나의 행운! 끊임없이 이 노래를 부르고 남들에게도 이 노래를 부르는 법을 가르쳐라. 5천 년의 긴 선이 그어졌으니 행복해하며 춤춰라. 앗차.

2) 너희들은 한 분 뿐인 아버지를 기억하며 한결같은 단계에 항상 안정해 머무는 고귀한 영혼들이 아니냐? 너희는 항상 한 분에게 관심을 가졌느냐, 아니면 너희를 끌어당기는 또 다른 관심사가 있느냐? 다른 관심이 너희를 끌어당기지는 않겠지? 너희들은 모두 단 한 분만 가졌다. 너희 모두 한 분에게 합쳐져 있다. 단 한 분 뿐이고 다른 누구도 없는데 너희가 다른 어디로 가겠느냐? 숙부나 외삼촌들은 없을 테지? 너희들 모두가 한 약속이 무엇이냐? 너희가 한 약속은, “당신은 모든 것입니다”라는 것이다. 쿠마리들은 굳건한 약속을 했느냐? 너희는 굳은 약속을 했고 너희는 목둘레에 결혼 화환을 걸었다. 너희들은 약속했고 결혼 화환을 받았다. 너희는 남편을 찾았고 집도 역시 찾았다. 그래서 너희는 남편과 집을 갖게 되었다. 부모들은 결혼하지 않은 그들의 딸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해야 하느냐? 그들이 좋은 신랑과 집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이다. 너희는 세상 전체가 칭송하는 그런 남편을 찾았다.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는 그러한 집도 찾았다. 그러니 너희는 결혼 화환도 아주 잘 걸고 있느냐? 그런 쿠마리들은 지각 있다고 불린다. 쿠마리들은 어쨌든 지각이 있다. 밥다다는 쿠마리들을 보며 행복한데, 왜냐하면

너희들은 구제 받았기 때문이다. 만일 누군가 추락하는 데서 구해진다면 행복이 있지 않느냐? 넘어진 어머니들, 쓰러진 어머니들은 구해졌지만, 쿠마리들은 넘어지지 않게 애초에 구제되었다고 일컬어질 것이다. 이렇게 너희들은 참으로 복이 많다. 어머니들에게는 그들 나름의 행운이 있고, 쿠마리들에게는 또 그들 나름의 행운이 있다. 어머니들은 복이 많은데 왜냐하면 너희는 고팔 (목동)이기 때문이다.

3) 너희들은 한결같이 마야의 정복자들이냐? 마야의 정복자인 자들은 세계 시혜자라는 도취감을 틀림없이 가질 것이다. 너희는 그러한 도취감을 가졌느냐? “무한한 봉사”는 세계 봉사라는 뜻이다. 언제나, “우리는 무한함의 주인인 분의 자녀들이다”라는 의식을 가져라. 너희가 무엇이 되었으며 무엇을 받았는지 너희들은 안다, 그게 전부다. 끊임없이 이 행복으로 계속 전진해라. 밥다다는 전진하는 자들을 보며 행복하다.

변함없이 아버지 한 분을 기억하는 도취감 속에 도취된 상태로 머물러라. 신에 대한 도취감이 너희를 무엇으로 만들었느냐? 지구의 주민이던 데서 너희는 하늘의 주민이 되었다. 그러니 너희는 하늘에서 변함없이 머무느냐, 아니면 땅 위에 머무느냐? 너희들은 높은 가운데 최고로 높은 아버지의 자녀들이 되었거늘 어찌 저 아래에 머물 수 있겠느냐? 땅은 저 아래 있고 하늘은 저 위에 있으니, 너희가 어떻게 아래로 내려갈 수 있겠느냐? 너희의 지각이라는 발은 결코 땅위에 놓이지 않는다. 저 위에 있다. 이것은 높은 가운데 최고로 높은 아버지의 가장 높은 자녀가 되는 것이라고 불린다. 이 도취감을 지속해라. 끊임없이 흔들림 없고 부동하게 머물며 모든 보물들로 가득한 상태로 머물러라. 만일 조금이라도 마야에게 동요된다면 너희는 모든 보물을 경험하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아버지에게서 참으로 많은 보물들을 받았다. 그 보물들을 항상 영원히 간직하는 길은 끊임없이 흔들림 없고 부동하게 머무는 것이다. 흔들림 없이 머무므로써 너희는 끊임없이 행복을 계속 경험할 것이다. 없어지는 부에도 역시 행복이 있지 않느냐? 없어질 수 있는 지도자의 자리를 받으면, 이름과 명성을 받으면, 사람들은 참으로 대단한 행복을 경험한다. 하지만 이것은 불멸하는 행복이다. 오직 흔들림 없고 부동하게 머무는 자들만이 이 행복을 가질 것이다.

브라민들은 모두 자아주권을 이미 받았다. 전에는 너희가 노예들이었고 “저는 당신의 노예입니다, 저는 당신의 노예입니다”라는 노래를 부르곤 했었다. 이제 너희는 자아의 주인, 자아의 군주가 되었다. 이처럼 지금 참으로 크나큰 차이가 있고, 낮과 밤만큼 다르다. 아버지를 기억하고 노예에서 왕이 되어라. 너희는 전체 사이클을 통틀어도 그런 왕국을 찾을 수 없다. 이 자아주권으로 너희는 세계 왕국을 받는다. 따라서 이젠 끊임없이, “나는 자아주권에 대한 권리를 가졌다”라는 이 도취감 속에 머물러라. 그렇게 되면 그 신체감각들은 자동적으로 고귀한 길을 따를 것이다. 너희가 원했던 것을 이미 성취했다는 도취감을 변함없이 지속해라. 너희가 과거의 너희에서 무엇이 되었는지, 너희가 있던 곳에서 지금은 너희가 어디에 도달했는지 보라. 앗차.

**Blessing:** 몸에 관한 일체의 관계에서 자유로워지고 집에서 가족들과 살면서도 아버지 한 분과 결합된 상태로 머물러 있어라.

집에서 가족들과 살면서 순수한 가족의 배역을 연기하고자 한다면 몸에 대한 어떠한 관계도 초월한 상태로 머물러라. 꿈에조차 너희가 남자이며 그 사람은 여자라는 의식이 없게 해라. 영혼인 우리들은 모두 형제이거늘 어떻게 남자와 여자가 있을 수 있느냐? 결합된 형태에서 그것은 너희와 아버지다. 그것 (부부인 것)은 단지 명목상일 뿐, 봉사를 위한 것일 뿐이다. 하지만 결합된 형태에서는 “나와 아버지”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라, 그러면 너희가 용감하고 승리하는 영혼이라고 불릴 것이다.

**Slogan:** 변함없이 충족되어 있고 행복하게 지내는 자들은 행복이라는 행운을 가졌으며

집중적인 노력가들이라고 불린다.

**\*\*\* 음 산티 O M S H A N T I \*\*\***